

'꽃심, 전주정원문화박람회' 개막

6일까지 전주종합경기장·노송동 일원·전주시 양묘장·팔복예술공장 등서 진행

천만그루정원도시 전주의 첫 정원 문화박람회가 개막했다. 닷새 동안 열리는 이 박람회에서는 전문가와 시민이 조성한 특별한 정원은 물론이고 정원 산업의 도약을 이끌 다양한 공간들이 선을 보인다.

전주시와 전주정원문화박람회 조직위원회는 2일 전주종합경기장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강동화 전주시의회 의장, 최신현 전주정원문화박람회 조직위원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1 꽃심, 전주정원 문화박람회' 개회식을 개최했다.

'이그르산(재즈)'과 '쁘렌데데(성악)'의 클라보 공연으로 시작된 이날 개회식은 봉효정 KBS 아나운서가 사회를 맡은 가운데 도시공공정원 3탑에 대한 시상과 전시 및 부스 투어 등이 유튜브로 생중계됐다.

'정원, 문화와 경제의 상생'이라는 주제의 전주정원문화박람회는 전주 종합경기장과 노송동 일원, 전주시 양묘장, 팔복예술공장 등에서 오는 6일까지 진행된다. 닷새 동안 정원이 도시의 경제 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정원산업전을 비롯해 전문작가와 시민, 마을공동체의 도시공공정원, 전문작가 초청정원 등 20여 곳의 특별한 정원을 만나볼 수 있다.

박람회 핵심 장소인 전주종합경기장에서는 ▲정원 소재 관련 39개 전문업체의 '정원산업전' ▲식물 소재 중심의 '샘플가든' ▲야생와 중심의 '야생화원' ▲종묘와 씨앗을 키우는 'nursery(종묘장) 가든' ▲가족·동호회·학생 등 시민들이 함께 만드는 '끝나지 않은 정원'을 관람할 수 있다.



전주시와 전주정원문화박람회 조직위원회는 2일 전주종합경기장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강동화 전주시의회 의장, 최신현 전주정원문화박람회 조직위원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1 꽃심, 전주정원문화박람회' 개회식을 개최했다.

또 미디어 아티스트 김범준 작가의 영상정원과 최은우·이민아 작가의 회화 및 한지 아트월, 전주지역 예술가 25인이 참여하는 정원 소품 전시부스도 운영된다.

노송동 일원에서는 마을정원 여행을 즐길 수 있다. 안내센터에서 배부되는 마을정원 여행 지도를 보며 주민들로 구성된 해설사로부터 정원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삼성어린이집을 시작으로 전주시혁신센터까지 800m 구간에는 전문작가와 시민 작가, 마을공동체가 자투리땅을 활용한 골목정원이 조성됐다. 전주시 양묘장에서는 안계동·정주현·최원만 작가가 조성한 '3인 무색정원'이 시민들을 기다린다. 점주정신 '꽃심'인 대동, 풍류, 울금음을 나타내

는 이 정원은 향토성 강한 토속식물을 활용해 전주의 멋과 흥 등을 표현했다. 팔복예술공장에는 권춘희 작가가 '적재·적소' 정원을 만들었다. 회색빛 산업단지의 노쇠함과 우울함이 따스하고 향기로운 공간으로 재탄생됐다는 평가다.

박람회 기간에는 전주의 대표 정원을 돌아보는 '가든투어'와 '정원 문화특강' 등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박람회 첫날인 이날 권춘희 작가는 팔복예술공장에서 '숲정원 이야기'를 주제로 특강을 했고, 4일에는 정현경 시민정원사가 전주중부비전센터에서 특강을 한다.

또 노송동 '뽕밭의 미술관'에서는 ▲꽃 패턴 실크스크린 ▲우리불 미니정원 꾸미기 ▲제철 식물로 뷔케

만들기 등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정원산업전 사전예약은 전주정원 문화박람회 홈페이지(jgcf.kr) 또는 전주종합경기장 행사장에서 할 수 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주정원문화 박람회는 단지 정원식물을 모아놓은 전시회가 아니라 다양한 정원소재를 통해 서로 연대하고 치유하는 박람회이자 산업으로의 성장을 목표로 하는 정원산업 기반 박람회"라며 "앞으로 도시 곳곳의 집, 산, 면을 정원으로 조성하고 시민들의 삶 속에 정원을 끌어들이는 산업으로 키워내는 천만그루정원도시 정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쓰레기 불법투기 사례 대거 적발

전주시, 집중 단속 결과 73건... 과태료 부과·야간단속 등 확대

전주시는 지난 4월부터 두 달간 전주전역을 대상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단속에 나선 결과 음식물 혼합투기 및 대형폐기물 무단투기 등 불법투기 사례를 대거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집중 단속 결과 ▲현장에서 불법투기를 하다 현장에서 적발된 사례 18건 ▲불법투기 쓰레기에서 인적사항을 발견해 적발된 사례 26건 ▲감시카메라(CCTV)를 통해 적발된 사례 29건 등 총 73건이었다.

현장 적발 사례를 보면 주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음식물과 재활용품 등을 혼합해 버린 경우가 1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형폐기물(건축폐기물) 무단투기는 3건, 차량을 이용한 불법투기는 2건이었다.

감시카메라를 통해 적발된 사례로는

차량을 이용해 건축폐기물과 대형폐기물을 불법으로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불법투기가 가장 많이 적발된 지역은 중화산동 선너머공원 일대, 중화산동 세강빌라 뒤편, 중인동 중인초교 앞, 유아동 석소어린이공원 일대, 팔복동 팔복파출소 앞, 인후동 북가재미어린어린이공원 일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불법투기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상습 불법투기 지역과 그 주변을 대상으로 야간단속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전주시주부감시단을 활용해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홍보하고 감시하는 데에도 힘쓰기로 했다.

이와 관련 지난 4월부터 두 달간 전주시에 제기된 정소민원은 총 1,476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윤상 기자

월드컵 지하차도 일부 통제

전주시 덕진구, 열선 설치 공사로 겨울철 교통안전 강화

5-14일 군산·익산 방면·15-25일 전주 방면 전면 통제

겨울철 결빙 시 사고위험이 있던 반월동 월드컵 지하차도에 도로가 어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열선이 설치된다.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장병호)는 오는 5일부터 25일까지 반월동 월드컵 지하차도 열선(히팅케이블) 설치 공사로 도로를 일부 통제한다고 밝혔다.

군산·익산 방면의 경우 오는 5일부터 10일간 전면 통제되며, 15일부터 25일까지는 전주 방면 도로가 전면 통제된다.

덕진구는 이번 설치공사에 따른 교통체증 발생에 대비해 주변도로로 우회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신호시간 조정, 신호수 배치 등 덕진경찰서와 협의해 통행 불편을 최소화

하기로 했다. 이번 설치되는 열선시스템은 노면의 결빙이 발생될 때 자동으로 온도와 습도를 감지해 전원을 자동제어하여 공급함으로써 폭설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도로가 어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또 열화각습과 같은 계절제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오염도 줄일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손준 덕진구 건설과장은 "전주의 관문을 통과하는 핵심도로인 반월동 월드컵 지하차도는 강설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위험이 높았던 곳"이라며 "열선 설치로 겨울철 교통안전도를 강화할 수 있는 만큼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윤상 기자

야호 놀이터 '동화·유튜브 영상' 공모

전주시, 18일까지 '야호 생태·숲놀이터 동화 스토리 공모전'

내달 30일까지 '야호 놀이터 유튜브 영상 공모전' 참여 작품 접수

전주시가 들락날락 두더지숲과 신기방기 도깨비숲 등 야호 놀이터를 주제로 한 동화와 유튜브 영상을 공모한다. 시는 오는 18일까지 '야호 생태·숲놀이터 동화 스토리 공모전'을, 다음 달 30일까지 '야호 놀이터 유튜브 영상 공모전'을 열어 참여 작품을 접수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야호 생태·숲놀이터 동화 스토리 공모전'은 ▲임금님숲 ▲딱정벌레숲 ▲때구르르 숲방울숲 ▲꼬불꼬불 도토리숲 ▲뽕까딱까 배짱이숲 ▲신기방기 도깨비숲 ▲알콩달콩 고슴도치숲 ▲들락날락 두더지숲 ▲플릭플릭 뽕까이숲 등 9곳의 야호 생태·숲놀이터를 소재로 한 동화를 모집한다.

동화는 A4용지 3~6장 분량(글자 휴먼명조 14포인트, 줄간격 160%, 여백: 상·하 15mm, 좌·우 20mm)으로 작성해 응모 가능하다. 응모 자격제한은 없으나 타 공모전에서 수상 이력이 있는 작품은 제한된다.

'야호 놀이터 유튜브 영상 공모전'의 경우 ▲야호 생태·숲놀이터 9개소 ▲야호 자연놀이터 2개소 ▲야호 생태·유아숲체험원 4개소 ▲야호 예술·전통놀이터 2개소 ▲야호 책놀이터 3개소 등 20곳을 활용한 영상을 촬영해 신청할 수 있다. 영상은 2분 이내 분량의 해상도 1280x720픽셀 이상(HD급 이상) MP4 파일로 제출하면

된다. 희망자는 야호놀이전주 홈페이지 또는 전주시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은 신청서 등 첨부 서류를 갖춰 이메일(CJFALS27@korea.kr)로 신청하면 된다.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국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전주의 다양한 놀이터를 아이들이 경험하고 이용하게 함으로써 도전과 모험심을 키워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신청된 작품들을 활용해 야호 놀이터를 전국에 홍보하고 관심도를 높여 아이들의 놀이문화를 확산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탄소포인트제 신규 참여자 모집

전주시는 전기·수도·가스 등 에너지 사용 감축을 위한 대표적인 탄소포인트제 신규 참여자를 연중 모집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대표적인 시민참여 프로그램인 탄소포인트제는 최근 2년간 각 가정의 전기·수도·가스 사용량과 현 사용량을 비교해 5% 이상 감축하면 연 최대 1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탄소포인트제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전기·수도·가스 고객번호를 확인해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하거나 전주시청 맑은공기에너지과(완산구 노송광장로 29, 4층) 또는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가입 후 주수나 연차제, 계좌번호 등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수정을 해야 정상적으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김윤상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